



#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2.02)



## 1. 당사 펀드 투자 대상 기업, 제이월드 투자금 납입 완료

안다아시아벤처스는 지난 2월 11일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제이월드에 85.4억원(안다아시아벤처투자조합1호 18억원, 안다소재부품벤처투자조합 67.4억원)을 투자하여 600,000주의 우선주 신주와 250,000주의 보통주를 인수하였습니다.

금번 투자의 인수 기업가치는 669억원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제이월드의 12.8%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월드는 2021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 1,603억원, 영업이익 328억원, 당기순이익 250억원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NOIDA) 등의 납품을 위한 인도법인 생산공장 신축을 진행 중으로, 삼성전자向 공급물량 확대 등의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이월드는 신규매출 확보와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재 개발 및 고기능성 Film, Tape, Label 공급사로서 성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의 두 조합에서의 투자가 제이월드에 집행되는 등, 당사의 많은 자원과 인력이 회사에 집중되는 만큼,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사후관리,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제이월드 투자내역

투자 방법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보통주 구주 인수
투자 자원	안다소재부품벤처투자조합 (67.4억원) 안다아시아벤처투자조합1호 (18억원)
주식 수	상환전환우선주(RCPS) [600,000]주 보통주 [250,000]주



## 2. 한국벤처투자 주관, 모태펀드 1차 정시 서류합격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에서 주관하는 2022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사업의 멘토기업 매칭출자 그린뉴딜 부문에 안다아시아벤처스가 1차 서류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1년 10월에 설립된 신설 창업투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18개사 지원, 12개사 1차 통과 )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비대면 현장실사와 운용사 제안서 PT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의 제안펀드 멘토로 참여하는 오텍캐리어와 계열사, 주요 출자자인 에스제이엠, 평화정공, 웹캐시 등은 그린뉴딜 산업의 최고 전문기업으로서 투자대상의 발굴부터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등에 대해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제안펀드는 회사 설립 후 최초로 결성 예정인 국내 정책펀드의 자조합인 만큼 당사의 주요 역량을 총동원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제안 펀드의 성과를 통해 운용 능력을 평가받고, 향후 추가적인 펀드 결성 여부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일반 금융·경제뉴스

안다아시아벤처스

## '전세계적인 증시 폭락과 향후 전망'

2022년 2월 14일 현지시간 기준 다우지수 34,566, S&P 4,401을 기록하며 한달동안만 각각 -4.4%, -5.86%의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美 CPI 지수 상승 발표로 인한 '인플레이션 쇼크'와 NATO의 동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겹쳐져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1분기는 미국 연준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두개의 대형 변수를 둘러싼 경계감이 고조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로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코로나 19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한 경제지표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여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은 장기적으로 투자기회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여러 변수는 남아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경기는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1월 안다아시아 월간뉴스에서 언급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시장의 조정국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2분기 부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기는 기회라는 투자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